
방언과 복수 표준어

한성우 ·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전공 교수

1. 방언과 표준어의 애증 관계

방언과 표준어는 대립적인 관계로 파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준어가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이라면 방언은 ‘한 언어가 사용 지역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전적인 정의와는 별도로 통념상으로는 방언의 다른 말인 ‘사투리’가 ‘표준어’의 대립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표준어 사용자’가 ‘방언 사용자’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방언이 학술적으로는 지역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로 인정을 받을지라도 일반인의 통념상으로는 표준어보다 못한 것, 표준어의 사용을 방해하는 것, 표준어를 배우기 위해 버려야 할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에서 한 걸음 벗어나 생각해 보면 방언과 표준어는 결코 대립적인 관계만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표준어가 곧 국어가 아니며, 특정 지역의 언어가 국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려한다면 국어의 모든 하위 언어는 방언일 수밖에 없다. 또한 표준어가 특정 지역의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특정 방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설사 방언과 표준어가 대립적

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어휘의 특성상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방언과 표준어는 훨씬 더 유기적이고도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방언과 표준어의 관계는 표준어를 정할 때부터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몇 번의 개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총론에서 제시된 ‘표준말은 서울말로 한다.’라는 규정은 1988년의 표준어 규정의 총론에서는 ‘표준어는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으로 다소 완화되어 계승된다. 비록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서울말’을 기준으로 표준어를 정했다는 것은 ‘서울말이 아닌 말’, 즉 방언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세부 규정을 살펴봐도 방언과 표준어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보인다. 더욱이 2011년 8월의 부분 개정에서도 방언 어휘 일부가 복수 표준어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방언과 표준어의 관계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2. 표준어의 뿌리

표준어는 궁극적으로 방언에 뿌리를 둘 수밖에 없다. 표준어 규정 제 1항의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표준어가 서울말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규정의 ‘서울말’은 결국 ‘서울 지역에서 쓰이는 말’, 즉 ‘서울 방언’으로 치환할 수 있다. 서울 방언은 표준어가 제정되기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표준어와는 별개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어는 국어의 한 방언인 서울 방언에 기원을 두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국어의 한 하위 방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울말의 어휘 공백 때문에 표준어는 서울 이외의 방언에 뿌리를 두기도 한다. 지역 방언은 그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므로 서울말에는 서울 지역에 없는 자연물이나 문화에 해당되는 어휘나 표현은 없다. 그런데 표준어는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어휘와 표현의 공백은 방언의 그것으로 메워야 하는 것이다. 비록 서울말을 바탕으로 하되 서울말에 없는 것은 방언으로부터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표준어의 뿌리는 서울 이외 지역의 방언까지 뻗어 있을 수밖에 없다.

3. 표준어의 방언 부정

그런데 표준어는 제정이 되는 순간부터 방언을 부정해야 한다. ‘서울말’로 표준어를 정했으면 서울말이 아닌 것은 모두 비표준어가 되므로 서울말과 다른 말을 사용하는 화자는 비표준어 화자가 되고 만다. 더욱이 표준어 규정 내에 ‘버려야 할 방언’이 적시되기도 하고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어휘는 모두 비표준어가 되어 버린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준어 사용이 권장 혹은 강요되는 만큼 방언은 부정된다.

표준어의 방언 부정은 보급과 수용 과정에서도 이루어진다. 표준어는 전국적으로 동등한 비중으로 보급되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서울말과 차이가 큰 지역에 집중적으로 보급이 된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방언은 배제가 되거나 배척이 된다. 방언 사용자 또한 표준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방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 표준어 사용이 교양과 교육의 척도가 되는 이상 가능한 한 자신의 방언을 감추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4. 표준어의 방언 욕심

표준어는 방언을 부정하고 배제하면서도 방언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을 보인다. 표준어 규정의 총론에서는 방언을 배제하고 있지만 표준어 규정과 목록이 부분적으로 개정될 때마다 방언이 표준어에 포함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1988년의 표준어 규정에는 방언과 관련하여 제23항의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와 제24항의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의 두 규정이 있다. 이러한 조향을 통하여 방언이 복수 표준어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기도 하고, 아예 기존의 표준어를 밀어내고 단수 표준어로서 기능을 하기도 한다.

부분적인 표준어 개정에서도 표준어는 점차 방언을 끌어들인다. 2011년 8월의 표준어 개정에서는 기존에 방언으로 취급되던 ‘남사스럽다, 복숭아뼈, 허접쓰레기, 토란대’ 등이 기존의 표준어와 함께 쓰일 수 있는 복수 표준어로 인정을 받았다. 또한 어미 ‘-길래, 내음, 뜨락, 손주’ 등은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을 받아 표준어 목록에 포함되었다. 표준어 규정의 부분적인 개정 작업을 통해 방언이 표준어의 일부로 편입되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어 규정이 복수 표준어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규정 자체에 대한 개정보다는 개별 어휘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다양한 방언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어의 어휘를 더 풍부하게 한다는 점에서 표준어는 적어도 어휘적인 면에서는 방언을 계속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다.

5. 복수 표준어와 방언

표준어가 방언에 대해 점차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그 결과 방언의 일부가 표준어 지위를 가지게 되었을지라도 방언 전체로 보았을 때 그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이제까지 표준어로 수용된 것은 대부분 어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방언은 표준어와 관계 없이 완전히 독립된 살아 있는 언어이고, 각각의 방언이 독자적인 어휘, 문법, 음운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휘 몇 개가 방언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표준어에 수용되었다고 해서 방언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방언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필요한 요소는 방언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 표준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방언과 대립적인 관계로 파악되는 상황에서는 복수 표준어가 늘어나는 것이 방언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크지 않다.

방언 사용자나 연구자의 입장에서 방언을 수용한 복수 표준어의 확대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표준어 규정 및 표준어라는 존재의 특성상 표준어라 정해진 것 이외에는 모두 비표준어 또는 방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준어에 수용된 극히 일부의 어휘를 빼면 나머지 모든 언어 요소를 사용하는 방언 화자는 여전히 비표준어 사용자로 취급을 받게 된다. 또한 방언을 수용한 복수 표준어의 확대를 계기로 '친방언적 표준어'로 위장해 방언을 더 위축시키는 상황이 된다면 방언 연구자로서도 결코 달가울 것이 없을 것이다.

6. 살아 있는 방언과 간혀 있는 표준어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방언이 '소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방언 사용자나 연구자는 표준어의

보급으로 인해 방언의 위축 또는 소멸을 염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의 대상이 되는 방언은 ‘표준어와 다른 방언’이지 ‘특정 지역에서 쓰이는 언어’는 아니다. 비록 표준어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언어가 기존의 방언을 밀어낼지라도 그 지역의 언어가 표준어와 같아지는 일은 없다. 표준어는 이미 틀 속에 갇혀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언어 속에 침투가 되면 얼마든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의 독자적인 언어 요소가 점차 사라지고 전국적으로 유사한 언어적 특징을 공유하게 될지라도 각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여전히 살아 있는 방언으로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방언과 표준어의 관계는 앞으로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비록 일반적인 인식 속에서는 대립적인 관계로 파악되더라도 표준어의 뿌리가 방언이고, 살아 있는 언어인 방언으로부터 새로운 자원을 공급 받아야만 더 생명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살아 있는 방언이 갇혀 있는 표준어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것이라면 표준어가 방언에 대해 문을 더 크게 열 필요도 있다. 그 방법의 하나가 현재와 같은 복수 표준어로의 수용이라면 앞으로는 이러한 복수 표준어를 대폭 늘려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